

관세 압박·반이민 정책...트럼프 미국 바로 알기

위험한 미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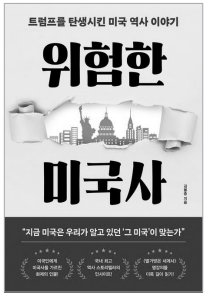
김봉중 지음

대규모 대미투자 강요, 고율 관세 정책 압박, 불법이민 단속, 주한미군 개편 시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 판을 뒤엎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최근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 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신간 '위험한 미국사'는 요즘의 '트럼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한다. 저자인 김봉중 전남대 명예교수는 국내 최고의 미국사 권위자이자 역사 스토리텔러로,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출연해 흥미로운 대중강의로 화제를 모았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트럼프 시대를 미국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평생 미국사를 연구해온 내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며 신간 집필의 도를 밝힌다. 또한 우리가 왜 지난 미국역사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거울이다. 미국을 본다는 건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는 일이다"라며 "독자들이 미국사라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변화무쌍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트럼프 시대'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이 책은 크게 1장 '트럼프 2기의 탄생배경과 역사', 2장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새로운 전환점인가', 3장 '미국 외교 전통을 파괴한 트럼프', 4장 '제2의 남북전쟁은 불가피할까', 5장 '트럼프의 미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등 5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동부해안 13개 식민지가 영국과 싸워 독립을 쟁취한 후 연방



요즘의 '트럼프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미국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들여다봐야 한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

을 형성해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으로 자리하기까지 249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트럼프 시대'를 분석한다. 미국은 '노예해방 선언' (1863년)과 '인권법' (1964년) 등을 통해 자유와 평등, 인권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다양한 민족·인종이 섞여 사는 '용광로' (Melting Pot) '이자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펼쳐지는 '반(反)이민' 정책은 아이러니하다. 또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무역정책과 '미국 우선주의', '강한 미국' 정책은 과거 미국 역사에 존재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1828년 수입품에 최고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허버드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기인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에서 명하며 수입품에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대통령의 의도는 미국경제를 더욱 망쳤다. 트럼프의 대표 슬로건인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1980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시다'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는 백인 보수주의자들을 결집시켰다.

저자는 트럼프 1기에 대해 "그의 정책들은 미국 정치에 새로운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미국 민주주의의 오랜 흐름에서 벗어난 과감한 이탈이었다. 전통적 공화당뿐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단아였다"고 평가한다. 현재로선 국제 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트럼프 시대'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지 선불리 예측할 수 없다. 끝으로 저자는 '트럼프 시대'의 미래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 우리는 다시 미국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되새겨야 한다.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미국의 역할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뢰가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그 특별한 유 굳게 붙들고, 미국이 동맹 본연의 길로 돌아오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살이는 노력이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한층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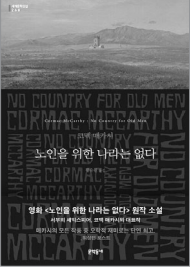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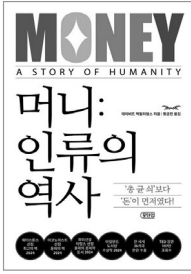
〈알에이치코리아·1만8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니체의 사악한 말(이진우 지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가혹하지만 다시 살아가게 하는 니체의 경구를 모았다. 철학자 이진우가 니체 원전에서 '사악한 말' 50문장을 뽑아 자유와 구원, 자기 회복의 힘을 전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상의 황혼' 등 주요 저작 속 아포리즘을 통해 삶을 뒤흔드는 사유와 전복적 통찰을 담았다. 〈휴머니스트·1만7500원〉

▲머니: 인류의 역사(데이비드 맥윌리엄스 지음, 황금진 옮김)=로마제국의 화폐 가치 하락에서 유럽 금융 혁신, 디지털 화폐에 이르기까지 인류사를 움직인 힘을 '돈'으로 해석한다. 5000년 역사 속 전쟁·제국·혁명 뒤에 숨은 경제적 동인을 파헤치며 방대한 자료와 흥미로운 서사로 돈의 진화를 그려낸다. 〈포텐업·2만8800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코맥 매카시 지음, 황유원 옮김)=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난 코언 형제 영화의 원작 소설. 1980년대 텍사스 국경을 배경으로 우연히 거액의 돈가방을 손에 쥔 루엘린 모스와 그를 뒤쫓는 냉혹한 살인자 앤턴 시거, 그리고 이 추격전을 지켜보는 늙은 보안관 벨의 이야기. 삶과 죽음, 정의와 폭력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매카시 특유의 절제된 문장으로 그려낸 서부 누아르 걸작. 〈문학동네·1만7000원〉

▲집, 다음 집 (상현 지음)=스무 번 넘게 이사를 다니며 쌓인 '공간의 기억'을 에세이툰에 담았다. 첫 독립과 첫 방, 때로는 비좁고 불편했지만 그 안에서 마음으로 완성해 간 집의 의미를 찬찬히 짚는다. 집을 꾸미는 법에서 나만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까지 평범한 일상 속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섬세한 글과 그림으로 전한다. 〈고래인·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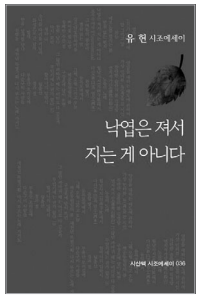
순리 따라 흐르는 인생의 이치...수필·시조에 담다

낙엽은 저서 지는 게 아니다

유현 지음

장흥 회진포구 선학동에서 태어나 강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반세기 타지를 떠돌다 월출산 천왕봉 아래 강진달빛한옥마을에 정착했다.

유현 시인의 이야기이다. 태어난 곳은 말 그대로 문기가 불쑥 배어나오는 장흥 선학동이다. 이경준의 소설 무대이기도 한 공간이 유현 시인의 뗏자리였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문인이 될 운명을 타고 났다는 얘기로 들린다. 유시인은 '한국수필' 신인상, '月月攷學' 시조 신인상,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 등을 계기로 창작활동을 이어



왔다.

한국 문학사에서 장흥은 기라성 같은 문인을 배출한 고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 고장에서도 가장 문학적인 '선학동'에서 태어난 유시인의 가슴에는 늘 문학에 대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에 그가 펴낸 '낙엽은 저서 지는 게 아니다'는 사뭇 시적인 제목의 작품집이다. '시조세에이'라는 부제가 말해두듯, 수필에도 운율을 가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그간 시조와 수필을 각각 발표해 왔지만 이번 수필집에 그들을 한데 모았다"며 "시조와 수필이 만났다"는 말에서 이번 작품집의 성격과 의미가 가늠된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말 그리고 말', '별을 읽는 밤', '양말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노을의 노래', '무인기에는 귀가 없다', '오래된 시간 속으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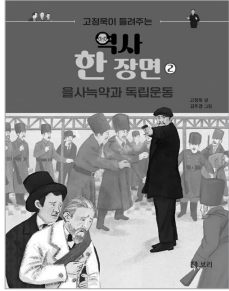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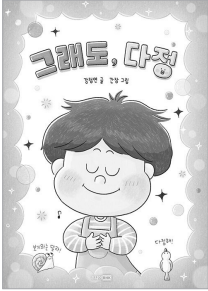
표제 작품 '낙엽은 저서 지는 게 아니다'는 순리에 따

른 변화를 매개로 인생을 성찰하는 글이다. 이맘때면 느낄 수 있는 세상의 이치, 삶의 덧없음 등을 저자는 특유의 율림이 있는 문체로 풀어낸다. 계절의 순환이 나의 순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은 세상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한다.

작가는 말한다. 낙엽은 경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한 철을 열심히 살다가 노을처럼 붉게 물들었다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정한 때가 있어 궁극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다.

벌써부터 낙엽들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있다. 한여름 절정을 향해 치닫던 나무들이 바야흐로 잎의 계절에 들어서는 것이다. 나무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저자는 나지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산맥·1만5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래도, 다정(강정연 지음, 간장 그림)=동시와 동화를 결합한 '동시 동화' 형식으로 아이들의 섬세한 마음을 그려낸 작품. 덩치 크고 목소리 큰 윤호는 친구들에게 오해를 사기 일쑤지만, 고모네 집에서 얻어온 달걀을 부화시켜 태어난 병아리 '망고'를 돌보며 다정한 마음을 발견해 간다. 병아리를 지켜보며 책임감과 배려를 키워가는 이야기가 시와 그림 속에 차분히 펼쳐진다. 〈주니어RHK·1만5000원〉

▲진실한 동물도감(최형선 지음, 차아다 그림)=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일까, 청개구리는 왜 비 오는 날 땅으로 내려올까. 익숙한 동물 관용 표현을 과학적 사실로 다시 살펴본다. '개코' '호랑이 이빨' '갱

거주족' 등 스물다섯 가지 표현을 만화와 설명으로 풀어내며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고 동물들의 진짜 습성과 능력을 전한다. 〈북스그라운드·1만6800원〉

▲고정욱이 들려주는 역사 한 장면 2 : 을사늑약과 독립운동(고정욱 지음, 김주영 그림)=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외교권과 주권을 빼앗긴 뒤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한 장면으로 보여준다. 안중근·윤봉길·이봉창 의사의 투쟁뿐 아니라 그들이 총과 폭탄을 들고까지의 과정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를 되찾으려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과 용기가 어린이 독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준다. 〈보리·1만3000원〉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향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